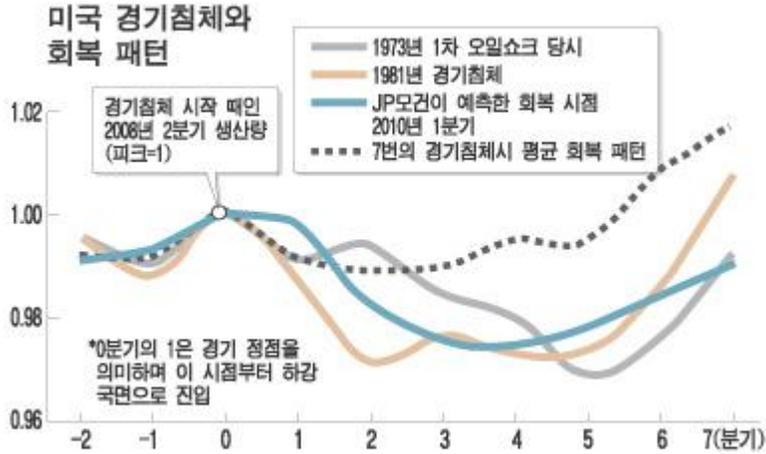


한국전문가 라이프치거 세계銀부총재 인터뷰
"미국경제 연말쯤 바닥칠것...보호주의 극복해야"



"미국 경제는 올해 말을 기점으로 바닥을 돌아 내년도에 본격적인 회복 단계에 들어갈 것이며 회복 스타일은 U자 모양을 그릴 것이다"

최근 `글로벌코리아2009` 포럼 참석차 한국을 방문했던 대니 라이프치거 세계은행 부총재는 25일 매일경제와 인터뷰에서 "오일쇼크 당시인 1973년과 1981년 경기침체 등 그동안 경기침체와 회복 주기를 지금 상황과 비교해볼 때 회복을 시작하는 시점을 올해 말로 예측할 수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과거 경기침체의 경우 경기가 정점에서 하강하기 시작한 후 4~5분기 후 저점을 치고 올라왔던 위기탈출 사례가 그 근거다.

그는 이어 "지금 세계경제 상황은 금융과 실물 부문이 서로 부정적으로 영향을 주면서 자신감을 잃게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선진국 복합 불황은 2차대전 후 가장 심각한 수준이며 개도국에는 아직 최악의 상황이 오지 않았다고 진단했다. 한국은 아직 바닥까지 안 내려왔다는 얘기도.

그는 경기침체를 ▲증시 붕괴 ▲집값 하락 ▲신용경색 등 세 가지 요소로

분석했다. 라이프치거 부총재는 "세계 경제에서 그동안 크고 작은 리세션이 122번 왔는데 이 중 4번은 주가·집값 폭락과 신용경색이 겹쳐서 왔다"고 진단했다. 현재 각국이 마련한 경기부양책 규모에 대해서도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라이프치거 부총재는 "미국 경기부양안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2.0%에 미치지 못하는 등 G20 국가들의 평균 부양 규모는 1.44% 수준밖에 안 된다"고 말해 더 과감한 경기부양이 필요함을 지적했다.



라이프치거 부총재는 특히 세계 경제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무역과 금융 부문에서 일고 있는 보호주의를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미 지난해 반덤핑관세가 30% 올랐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에콰도르 베트남 등이 관세를 올렸다고 비판했다. 미국 독일 프랑스 중국 등의 경기부양안에는 자국 전략산업을 보호하는 보조금이 들어 있다고 지적했다.

라이프치거 부총재는 "내셔널리즘 부활은 세계 무역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으며 이웃 국가를 가난하게 하는 무역정책(beggar-thy-neighbor trade policies)을 만들게 하고 있다"며 "이는 상대 국가의 보복을 유발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올해 세계 무역량은 1982년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할 것"이라며 "이번 4월 런던에서 열리는 G20 회담에서 각종 세계 기구들과 함께 글로벌 무역금융이 이뤄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라이프치거 부총재는 "지난 10년 동안 일본이 자동차 외 이렇다 할 대표상품을 만들어내지 못한 반면 한국은 철강 자동차 등에서 평가가 많이

올라갔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은 지금 일자리를 늘려 나가는 한편 미래를 주도할 신기술 개발에 적극 나서 금융위기 이후를 대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라이프치거 부총재는 "미국인들이 1995년 이후 저축률을 지속적으로 낮게 유지하면서 미국에 구조적인 경상수지 적자를 만든 반면 중국은 저축률이 너무 높아 국제적 불균형(Global Imbalance) 문제를 가져왔다"고 지적했다. 세계 경제 회복을 위해서도 미국인들은 저축률을 지속적으로 높여야 한다고 진단했다.

◆ He is...

라이프치거 부총재는 미국 브라운대학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미국무부에서 경제 관료로 일한 바 있다. 또 1997년 외환위기 당시 세계은행이 우리나라에 30억달러를 대출해줄 때 직접 실무를 맡았던 세계은행 내 한국 전문가다. 남덕우 전 총리를 비롯해 한승수 총리, 진념 전 경제부총리, 김기환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 한덕수 주미대사 등이 그의 오랜 지인들이다. 그는 또 95년 아르헨티나 외환위기 구제 프로그램도 주도했다.

[서양원 기자]